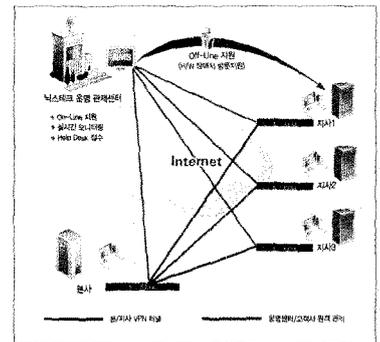


Venture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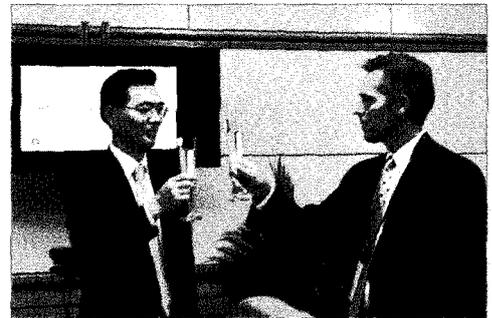
닉스테크 UTM 기반 'VPN' 서비스 개시

닉스테크(대표 박동훈, www.nicstech.com)는 포티넷사의 UTM장비로 직접 임대, 운영 관리 및 정기보고서를 통합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보안 아웃소싱 서비스 'SAFEVPN'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SAFEVPN' 서비스는 닉스테크가 직접임대를 통해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고객의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여, VPN 터널 및 시스템 운영, 유해 트래픽 감시 모니터링, 보안정책, 장애 이력관리를 분석하여 제공한다. 또한 매월 정기보고서(네트워크사용량, 시스템 자원 사용량 등) 외에도 Attack, Virus, Traffic 등에 대한 통합로그 분석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닉스테크 박동훈 대표는 "단순 제품의 임대서비스가 아니라, 고객의 네트워크 상태를 진단하고 이에 맞는 VPN운영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VPN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콜센터도 새롭게 구축했다"고 말했다. 닉스테크는 우선 기존의 고객들 위주로 VPN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VPN시장이 교체주기를 맞은 만큼 VPN의 마이그레이션 시장도 향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VPN 서비스 출시 기념으로 홈페이지에서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누리텔레콤, GE와 스마트그리드 사업협력에 관한 협약 체결

누리텔레콤(대표 조송만, www.nuritelecom.co.kr)은 GE와 스마트그리드 사업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GE에너지 밥 길리건(Bob Gilligan) T&D 담당 부사장이 GE측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국내 및 해외 스마트그리드 사업과 관련해 상호이익이 되도록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양사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뿐 아니라 향후 사업에서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상호협력, ▲전 세계 스마트그리드 산업에서의 사업기회를 양사가 협력하여 발굴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번 협약은 소비자측 스마트그리드의 핵심 인프라인 AMI(원격검침) 시스템을 보유한 누리텔레콤이 스마트그리드 글로벌 사업자인 GE와의 사업협력을 통하여, 한국 및 해외 스마트그리드 시장에서의 사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GE는 누리텔레콤이 2007년에 수주한 스웨덴 AMI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서 스마트계량기분야에 공동으로 참여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하여, 양사는 그 첫 번째 공동 사업으로 영국의 전기 및 가스 분야의 AMI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수주를 준비하고 있다. 누리텔레콤 조송만 대표는 "이번 GE와의 협약 체결은,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누리텔레콤으로서는 가장 큰 스마트그리드 시장인 미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해외 AMI 시장 공략의 역량이 한층 강화되어 향후 수출확대에 더욱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테크노빌리지 대표 유인목, 대한건설협회 특별강연

테크노빌리지(주)(대표 유인목, www.technovillage.com) 유인목 대표는 지난 8월 28일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가 주관하는 '건설사 창업 예비 CEO 교육'에 초빙되어 특별 강연을 하였다. 이번 강연에서 유 대표는 '창업가 정신과 창조경영'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특히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테크노빌리지(주)를 창업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성공시킨 창조경영 사례와 더불어, 평범하게 출발해 최고의 경지에 오르기까지 꿈과 열정 및 불굴의 도전이 뒷받침되었던 경험과 사례를 제시하여 건설관련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CEO 들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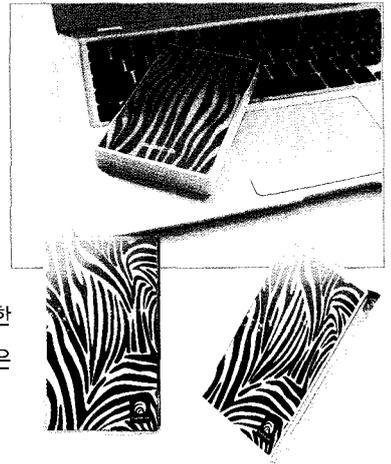
한편, 유 대표는 창업 이후 7년 연속 흑자경영 및 평생학습 등 탁월한 경영능력과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아 지난 6월 17일 제3회 『피터드러커 혁신상(Peter F. Drucker Innovation Award 2009)』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주)지디스,
외장하드 '스피카
레이디 스타일 -
Zebra' 2종 출시**

지디스(대표 한민, www.spicadrive.com)가 여성 고객을 겨냥한 2.5인치 휴대용 외장하드 디스크드라이브 'Zebra(지브라)' 2종을 출시했다. 여성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애니멀 패턴 중 지브라 패턴을 블랙과 핑크 2가지 컬러를 이용해 화려함을 더했다.

이번 스피카 Zebra는 '레이디 스타일'이라는 시리즈 중 첫 번째 제품으로 앞으로도 여성 고객을 타겟으로 한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스피카는 모든 생산 공정을 국내에서 진행해 제품의 신뢰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 인증과 국내 전자파 인증 외에 FCC/CE의 해외인증도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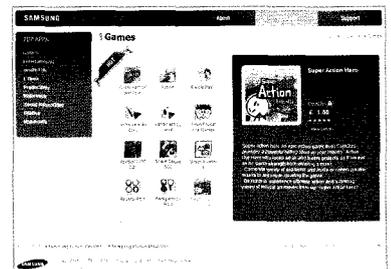
이번 출시된 '스피카 레이디 스타일-Zebra'는 320GB와 500GB 두 가지 용량으로 판매한다. 지디스 한민 대표는, "외장하드도 이제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고 있는 지금, 품질/성능은 기본이고 디자인 경쟁력이 외장하드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컴투스,
삼성 앱스토어 게임
2종 출시**

컴투스(대표 박지영, www.com2us.com)는 공식 오픈 된 '삼성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이하 삼성 앱스토어)를 통해 자사의 대표 인기 모바일 게임 2종을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컴투스는 이번에 서비스를 시작한 게임 'We R Puzzle Family'와 'Super Action Hero'가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밀리언셀러 게임 '액션퍼즐패밀리'와 '슈퍼액션히어로'를 수출용으로 재개발 한것이기 때문에, 삼성 앱스토어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컴투스 글로벌사업팀 구준우 팀장은 "유럽은 모바일 오픈마켓이 이미 활성화되고 있어 이번 삼성 앱스토어 서비스를 통해 컴투스의 우수한 게임들이 유럽에 더욱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다음 달에도 모바일 3D 골프 게임인 'GrandPar Golf'를 서비스 하는 등 지속적으로 컴투스의 다양한 게임들을 삼성 앱스토어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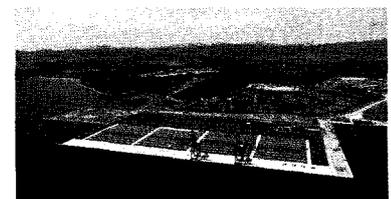


**싸이버로지텍,
첨단 항만 운영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싸이버로지텍(대표 최장림, www.cyberlogitec.com)은 대림&S(대표 김영복, www.daelimins.com)와 공동으로 진행한 포항영일신항만의 유비쿼터스 정보시스템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u-Port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자사의 터미널 운영시스템인 '오피스 터미널(OPUS Terminal™)' 및 ERP 시스템, 그룹웨어, 홈페이지, 게이트/장치장 자동화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개항한 포항영일신항만은 총 3천 316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대구·경북지역의 유일한 컨테이너 부두이며, 아시아 역내 화물을 직접 처리하는 직항 조건을 갖추고 있다. 3만급 컨테이너 선박 4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안벽길이 1000m, 폭 600m)로, 이는 축구장 10배 크기에 맞먹는다. 특히 기존 항만과 달리 세계 최초로 설계부터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무선인식(RFID), 무선원격시스템(USN), 차세대 무선통신을 활용해 항만의 운영 효율 향상과 보안 강화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싸이버로지텍은 이번 'u-Port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서 포항영일신항만과 기존 항만과의 차별화, 운영의 효율향상을 위한 최적화 시스템 구현, RFID 기술을 활용한 첨단 컨테이너 터미널 실현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이를 위해 터미널의 최적화된 관리와 높은 생산성을 보장하는 오피스 터미널을 도입해 터미널 운영 효율을 극대화했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싸이버로지텍은 터미널 운영 시스템에서부터 게이트 장치장 자동화 설비, ERP 시스템 및 그룹웨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OCR/CPS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유비쿼터스 항만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들을 통합적으로 구축해, 향후 프로세스 생산성은 44%, 전체 항만 생산성은 20%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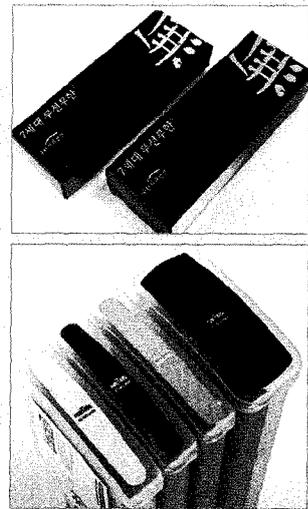
Venture Focus

네텐, 새로운 7세대 '무선 무한잉크 공급기' 선보여

네텐(대표 장성천, www.neten.com)은 HP(휴렛팩커드) 오피스젯 프로 시리즈 잉크젯 프린터/복합기용 제품인 7세대 무선 무한잉크 공급기'에 용량과 기능을 대폭 개선한 7세대 무선 무한잉크 2.0버전' 공급기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7세대 무선 무한잉크 공급기는 호스를 이용한 무한잉크 공급기의 단점으로 지적된 잉크의 변질로 인한 품질 저하, 까다로운 설치, 복잡한 구조, 잦은 고장 등을 개선해 지난해 7월 세계 최초로 출시한 이래 지금까지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무한잉크의 베스트셀러이다. 이번에 출시된 네텐 7세대 무선 무한잉크 2.0버전' 공급기는 기존 400ml 제품의 장점을 그대로 이어 받은 제품이다. 잉크 용량이 600ml로 50% 더 많아진 반면, 고속 인쇄 시 유격으로 인한 흔들림을 크게 줄였다. 특히 기존 400ml 제품의 단점으로 지적돼 왔던 잉크의 용량과 흑색 카트리지의 흔들림 등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많은 출력량과 안정적인 프린팅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네텐의 장성천 대표는 "이번에 출시한 600ml 신제품은 기존 400ml 제품과 마찬가지로 HP 오피스젯 프로 K550/K5300/K5400dn/K8600 프린터와 L7380/L7580/L7590 복합기에 장착이 가능하다"며, "향후 보다 다양한 기종에 장착할 수 있고, 성능도 더욱 개선된 무한잉크 공급기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안철수연구소, 보안성 강화한 'V3 Zip'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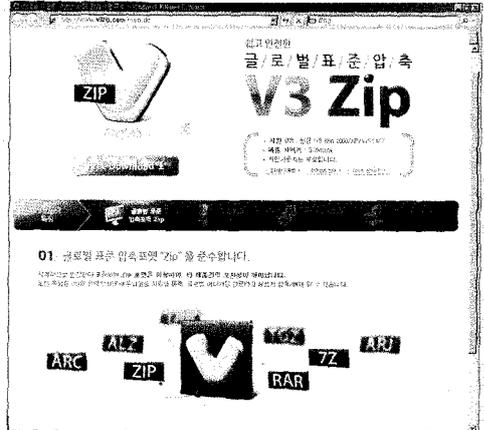
안철수연구소(대표 김홍선, www.ahnlab.com)는 쉽고 안전한 압축 유틸리티인 'V3 Zip'을 출시해 개인에게 무료로, 기업에는 유료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V3 Zip'은 모든 압축 포맷을 지원함으로써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압축 파일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하는 한편, 보안 제품 사용자에게 부가 가치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V3 Zip'은 글로벌 표준인 Zip 포맷을 준수함으로써 국제 표준 문자 코드 규약인 유니코드(용어 설명)를 완벽히 지원한다. 이로써 국내 사용자도 언어가 다른 압축 파일의 깨짐 현상을 겪지 않게 되었다. 아울러 제품 간 완벽한 호환성을 구현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40여 가지 포맷은 물론 국내 압축 소프트웨어와도 호환된다. V3 Zip은 V3와 연동해 PC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악성코드가 주로 설치되는 시스템 폴더에 압축 파일이 풀리거나 유해 가능 파일이 풀릴 경우 이를 경고함으로써 악성코드 설치를 예방한다. V3의 실시간 검사 기능이 꺼져 있거나 엔진 버전이 최신이 아닌 경우에도 경고해준다. V3 Zip은 효율 알고리즘을 적용해 기존 타사 제품보다 압축 시간이 빠르며, 이미지 미리보기가 가능해 압축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진이나 그림을 볼 수 있다. PC 리소스를 자동 제어해 메모리 점유율이 적은 것도 특징이다.

'V3 Zip'은 개인은 무료, 기업은 유료로 전용 웹페이지(www.V3Zip.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일반 가정용 PC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기업 및 공공기관, 단체, PC방 등은 유료로 라이선스 계약 후 사용할 수 있다.

안철수연구소 임영선 인터넷사업본부장은 "기가 단위의 파일 전송이 물리적, 경제적으로 손쉬워진 현 시점에 압축 유틸리티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가치, 파일과 폴더에 대한 보안성 담보, 편의성 및 관리가 중요하다. 'V3 Zip' 역시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했다. 무엇보다 글로벌 표준 포맷을 준수해 기존 타사 제품의 불편함을 해소한 것이 의미가 크다"라고 전했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자동차 내비게이션용
DMB 칩 양산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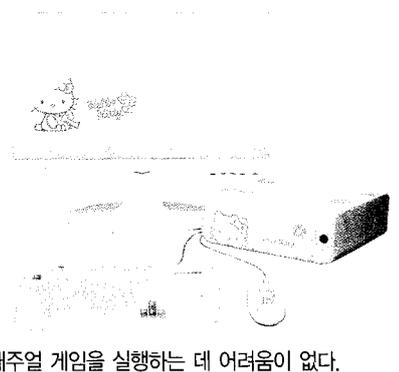
아이앤씨테크놀로지(대표 박창일, www.inctech.co.kr)는 현대자동차 신형 YF 소나타의 일체형 내비게이션에 DMB 칩을 공급,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의 DMB 칩이 쌍용자동차의 일부 모델인 렉스턴과 체어맨에 적용된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처럼 SoC가 주요 자동차 대표 모델에 적용된 사례는 업계 최초다. 이는 아이앤씨테크놀로지 SoC 제품의 안정성과 가치를 인정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차량 내비게이션용 DMB SoC칩은 현재 현대모비스를 통해 현대자동차에 공급되고 있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의 이번 DMB 칩(제품명: T3500)은 차량에 장착되는 내비게이션용으로 수신한 신호의 잡음을 제거하는 RF와 이를 디지털 해독하는 베이스밴드 기능을 하나의 칩으로 해결한다. 또한, 단말기는 작고, 60mW 이하의 저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북미를 비롯한 해외수출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는 DMB 칩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로써 향후 DMB 칩의 적용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의 박창일 대표는 "이 제품은 제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제품군으로 시장확대가 가능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며 "향후 국내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시장 어디를 내놔도 일등 브랜드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뉴엘,
헬로키티 PC
케이스 출시**

모뉴엘(대표 박홍석, www.moneual.co.kr)은 최근 미니PC의 관심이 증가되면서 자사의 미니PC MiNEW A10가 좋은 반응을 얻자, 귀엽고 깜찍한 모습의 헬로키티 캐릭터를 삽입한 Skin Case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Hello Kitty Skin Case는 국내에서 헬로키티 관련 USB 드라이브, 노트북 스킨, 외장형 HDD 케이스 등 IT 제품들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 (주)디지털벤처스(www.digitalventus.com)에서 개발한 것으로, 기존 A10 케이스를 깜찍한 헬로키티 PC 케이스로 변신시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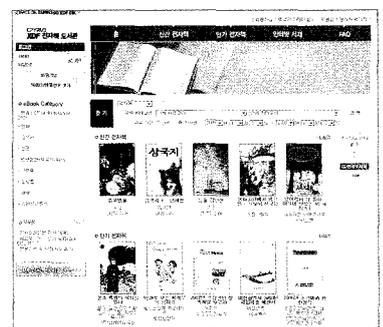
헬로키티 케이스를 씌운 미니PC 'MiNEW A10 헬로키티'는 기존의 칙칙한 색상의 덩치 크고 소음이 많은 컴퓨터와 차별되는 귀엽고 깜찍한 디자인과 가로 20cm, 세로 21cm, 높이 7cm의 콤팩트한 사이즈이며 인터넷, 문서작업, DVD급 동영상 감상, 온라인캐주얼 게임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에피루스,
기업 기밀자료
보안 실시간으로
지키는 전자책
솔루션 출시**

에피루스(대표 김인중, www.epyrus.com)에서 각 기관이나 기업에서 소장 중인 기밀문서들을 허용된 사용자에게만 실시간으로 암호화시켜 전자책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기업용 전자책 자료실 솔루션, 'XDF EBL(E-book Library) 시큐리티'를 출시했다.

기존 XDF EBL 스탠다드 제품에 비해 이번에 출시한 'XDF EBL(E-book Library) 시큐리티'는 기업의 기밀문서들을 각 문서의 등급에 맞게 권한이 있는 사용자들에게만 선택하여 서비스할 수 있다. 특히 권한이 있는 사용자라 할지라도 열람 요청 시 실시간 암호화 과정을 통해 해당 기기에서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 컴퓨터나, 이동형 디스크, 휴대폰 등의 저장 매체로 해당 문서를 저장하여 열람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특히 모든 유형의 문서를 각 담당자들이 간단히 전자책으로 변환 후 등록할 수 있는 변환 툴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기업 내에서 생성되는 모든 유형의 문서들 즉, 스캔된 이미지를 포함하는 각종 문서 포맷들을 정형화된 전자책의 형태로 변환할 수 있다. 또한, 본문검색 기능을 포함한 유용한 기능을 통해 빠르게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전자책 시스템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함은 물론 전자책 등록자가 보안의 적용 및 등급의 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분산된 컴퓨팅 환경에서 최적의 서비스 및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에피루스의 김인중 대표는 "'XDF EBL(E-book Library) 시큐리티' 솔루션의 출시로 많은 비용, 오랜 사업수행 기간 등으로 인해 온라인 문서 보안 서비스 채택을 주저했던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의 투자만으로도 내부 문서의 보안 서비스 효과는 물론 강력한 검색 기능을 통한 지식의 축적 및 활용 효과까지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Venture Focus

인프라웨어, '2009년도 표 200대 중소기업' 선정

인프라웨어(공동대표 강관희, 박민철, www.infraware.co.kr)는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매년 선정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00대 베스트 중소기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9월 10일, 포브스 아시아판 최신호에 따르면 이 잡지가 뽑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00대 베스트 중소기업(Forbes Asia's 200 Best Under A Billion)'에 인프라웨어, 메가스터디, 중앙백신 등을 포함한 23곳의 국내 기업이 선정되었다. 지난 해 13개 기업에 선정되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올해 조사에서 국가별로는 중국 본토의 경제회황으로 인해 홍콩이 지난해 63곳에서 올해 78곳으로 선정 기업수를 늘리며 1위를 지킨 반면,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가전부품 공급업체의 감소로 인해 제작년 41개 기업이 선정되었던 대만은 작년 25개에 이어 올해 16개 기업만이 선정되는데 그쳤다. 포브스 아시아는 아태지역의 연매출 10억 달러 미만 중소기업 가운데 실적이 좋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200곳을 매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인프라웨어는 지난 2007년에도 동일한 평가내용에 선정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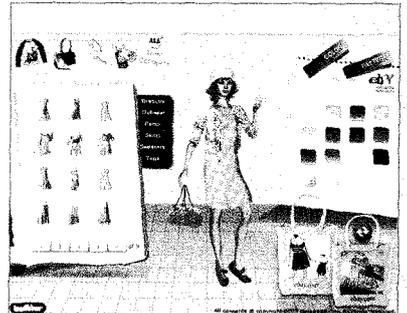
지앤지커머스, e-Bay에 비주얼 검색엔진 캔버시 (Canvasee) 서비스 제공

지앤지커머스(대표 모영일, www.g-n-g.com)는 동사의 미국 현지법인인 Canvasee, LLC를 통해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 전문기업인 미국 이베이(ebay.com) 웹사이트에서 비주얼 상품 검색엔진인 캔버시(Canvasee)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캔버시는 비주얼 상품 검색엔진으로 패션 관련 상품을 사용자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웹 애플리케이션이다. 캔버시(Canvasee)는 캔버스(canvas)와 보다(see)의 합성어로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려서 찾아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 디지털 캔버스에 디자인한 그림과 유사한 상품을 찾아주는 서비스로 사용자에게 쇼핑의 편리함과 재미를 선사하여 패션 관련 전자상거래에서 독창적인 맞춤형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미지 디자인을 이용한 상품 검색을 통해 원하는 상품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사용자가 직접 코디네이션 한 패션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 등의 제공으로 상품검색과 선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캔버시의 이베이(e-Bay.com) 솔루션 런칭은 국내 비주얼 검색엔진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동사가 글로벌 e-비즈니스 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캔버시는 향후 구글(google.com)과 아마존(amazon.com)에도 비주얼 검색엔진 제공을 추진하고 있어 그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엔툰, 네이버 프로야구 생방송 중간광고 서비스 런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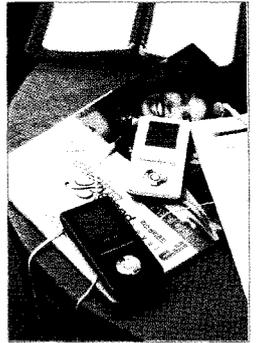
엔툰(대표 이동재, www.ntom.co.kr)이 네이버와 협력해 지난 달 네이버 프로야구 섹션에 새로운 광고를 런칭했다. 9월 1일 새롭게 오픈한 광고 서비스는 네이버 스포츠 섹션의 라이브센터 내 프로야구 생중계에 삽입되는 중간광고로, 회(inning)와 회 사이 자성파 방송 광고를 대체해 실시간으로 영상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온라인 영상광고가 RMC(Ready Made Content) 또는 UCC(User Created Content) 전, 후에 노출되는 방식이었던데 반해 엔툰의 생방송 중간광고는 온라인 생방송 콘텐츠 사이에 정지 없이 광고를 삽입하면서 노출 수 및 클릭에 관한 광고 집행 리포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엔툰의 독자적인 솔루션 '미디어나인 라이브 인코더'(Media9 Live Encoder)로 인해 가능하다. 라이브 인코더는 생방송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광고 삽입 또는 광고 편성이 가능한 생방송 중간광고 삽입 소프트웨어로, 현재 국내외에서 독보적인 솔루션이다. 지난 2007년 6월에는 국내 최초로 포털 사이트 Daum의 이승엽 경기 라이브 방송 시 중간광고로 주목을 받았다. 네이버 프로야구 생방송 중간광고 제휴를 추진해 온 엔툰 사업개발팀 곽효원 과장은 "생방송 중간 광고는 온라인 상에서도 TV 광고와 같은 자연스런 브랜딩이 가능하다는 점과, 몰입도가 높고 시청 타겟이 명확한 온라인 시청자들에게 노출이 되면서도 정확한 광고 집행 리포트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점 등으로 온라인 상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라이브 콘텐츠와 더불어 효과적인 광고 영역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인전자,
입체적 어학기능과
풍부한 콘텐츠 갖춘
'워크랩 뷰' 출시**

아인전자(대표 조용철, www.ain-e.co.kr)는 입체적인 어학학습 기능과 풍부한 콘텐츠를 갖춘 워크랩의 신규모델인 '워크랩 뷰(WalkLab VIEW)'를 출시했다. 워크랩은 듣기, 말하기, 발음훈련 등 어학학습에 꼭 필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기능 어학학습기이다. 즉, 문장단위로 음성을 듣고 따라 말하면 학습자 음성이 자동으로 녹음되고, 녹음내용을 들을 수 있어 말하기 능력이 향상되고 발음도 교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다. 받아쓰기, 원어민과 대화하기 등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워크랩 뷰'는 기존의 워크랩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갖췄다. 유명 영어회화 프로그램인 더존의 인글리시(English)의 24권 분량인 2만 3천 문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준별 핵심 영어단어 21종 3만 단어가 기본 탑재되어 단어학습기로서도 손색이 없다. 또한 백서스, 길벗, 능률교육, 파고다 등 국내 18개 유명 어학출판사와 제휴하여 영어(회화, 특목, 수능, 비즈니스, 토익, 토플, SAT 등)는 물론 일본어, 중국어까지 700여 종의 다양한 어학 콘텐츠를 유/무료로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워크랩 뷰는 10cm의 길이와 72g의 무게여서 호주머니에 쉽게 넣을 수 있고, 1회 충전에 18시간까지 배터리가 지속되어, 효율적인 휴대성을 갖췄다고 평가된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거나 걸어가면서 활용하기에 좋으며, MP3 플레이어와 보이스 레코더 기능도 있어서 학습용도 외에도 다양한 제품 활용이 가능하다.



**에이치시티,
국제 표준
흡입독성시험평가
장비 공급**

에이치시티(대표 이수찬, www.hct.co.kr)가 국내 최고의 독성시험 전문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KIT) 정읍분소에 나노물질 인체 유해성 평가를 위한 흡입독성 시험 장비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전체 3960㎡(1,200여 평) 규모에 총 80여 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안전성평가연구소는 기술과 시스템에 이어 장비에 이르기까지 흡입독성평가시험 서비스를 위한 전 부분의 국산화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신약이나 화학물질 등의 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독성평가 분야 중에서도 최첨단 기술에 해당하는 흡입독성평가는 일부 국가에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다. 최근에는 나노 기술의 부작용과 유해성 등 잠재적 위험을 검증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 방안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술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에이치시티가 자체 개발한 이번 장비는 나노물질과 담배연기를 반복적으로 피시험 동물의 코로 흡입하도록 하는 비부노출(nose-only) 시스템과 피시험 동물의 전신에 나노물질을 노출시켜 유해성을 평가하는 전신노출(whole-body)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나노물질의 반복 비부노출을 위한 흡입장치 시스템은 처음 국산화된 기술로 은이나 금 등의 금속성 나노 입자(Particle)의 발생을 비롯해, 입자간 응집을 최소화하여 고른 분포도를 유지하고 고농도의 입자 생성으로 평가 수준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에이치시티 권오택 연구소장은 "나노기술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및 표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 국내외적으로 미세입자에 대한 관심과 관리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향후 시장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코퍼스트,
바닥 설치형
난방기 'OFM' 출시**

코퍼스트(대표 조은주, www.kofirst.com)는 벽면에 설치가 힘든 복도형 구조나 주방, 현관, 화장실의 등 파방지, 소원도의 결로방지 등에 적합한 난방기 'OFM'를 새롭게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바닥 설치형 난방기는 작고 경제적이며 상업용 빌딩은 물론, 주거공간에 공간 활용과 고효율의 난방효과를 제공한다. OFM은 자동온도조절장치가 제품 내부에 설치되어 자동온도조절이 가능하며, 드라이버로 고정이 가능해 임의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0.4mm(직경) 이상은 제품 내부로 들어가지 않게 설계되어 제품의 손상이나 이상동작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온도 과소방지 안전장치가 내장되어 이상 고온 등 제품이 이상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계했다. 코퍼스트 정원상 이사는 "OFM은 주택이나 빌딩, 사무실, 상업시설, 관공서, 공장 등 벽면설치가 힘든 곳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Venture Focus

엔터테인먼트쇼핑(주) 김병기 대표 취임

독특한 옥션 기능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스우포'를 서비스하는 엔터테인먼트쇼핑(주) 대표 김병기, www.swoopo.kr에 김병기 대표가 취임했다. 김병기 대표는 모바일게임 기업 지오인터랙티브의 전 대표이사로 성공적인 벤처 1세대의 표상으로 알려졌다. 10여 년에 걸쳐 지오인터랙티브를 모바일 게임 업계에서 최고의 기업으로 일군 그는 또다시 2009년 11월 신개념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스우포(www.swoopo.kr)를 오픈할 준비에 한창이다. 엔터테인먼트쇼핑의 본사인 독일 Swoopo에서는 매일 1만여 개가 넘는 제품이 등록되며 240만 명 이상의 회원이 거래에 참여해 혁신적인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성장하고 있다.



회원은 경매를 통해 각종 제품을 정가보다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Swoopo의 상품 구매자는 입찰할 때마다 약 0.6달러(미국 기준)의 비용을 내야 하는데, 쇼핑의 욕망을 자극해 입찰을 반복하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온라인 게임 코드와 연결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김병기 대표는 "Swoopo는 전자상거래이면서 동시에 게임과 같이 재미를 주는 엔터테인먼트 쇼핑이다. 매일 수천 명의 Swoopo 고객들은 인터넷에서 그들의 전략으로 최고의 구매를 하고자 시도한다. 이런 고객들에게 옥션과 할인 구매의 혜택을 동시에 주는 것이 엔터테인먼트의 모토" 라고 설명했다.

이노릭스, 1분내 구축하는 업무용 웹하드 'InnoHD (Hyper-Disk)' 출시

이노릭스(대표 권충열, www.innorix.com)는 업무용 웹하드를 사내에서 직접 구축할 수 있는 웹하드 솔루션 InnoHD(Hyper-Disk)를 출시하여 인기를 얻고 있다. 설치 마법사를 따라서 '다음' 버튼만 몇 번 클릭하면 설치가 완료 되므로 누구나 1분 내에 설치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PC나 전용 서버장비 등 하드웨어에 제한없이 설치가 가능하며, OS는 윈도우와 리눅스 2가지를 지원한다. 장착된 HDD의 전체 용량을 웹하드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대용량 HDD만 장착되어 있다면 사내직원과 고객, 협력사 모두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다.

InnoHD는 대규모 환경에도 최적화 되어 수십만 개의 파일과 폴더도 고속 리스팅하는 놀라운 성능을 발휘하며, 4GB 이상의 초대용량 단일 파일과 대용량 폴더까지 통째로 전송할 수 있는 유일한 고성능 웹하드 솔루션이다. 또한 전체공유, 부서별 공유기능과 사용자별 권한 관리 등 기업 환경에서 요구되는 웹하드 기능과 함께 다양한 부가기능, 사용자 편의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이노릭스는 이러한 고성능 웹하드 솔루션 InnoHD를 대기업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대상에 보급하기 위하여 홈오피스,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3가지 버전으로 구분하여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InnoHD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와 체험버전 다운로드 는 'www.innohd.com' 에서 가능하다.

코인미디어랩, 저작권 침해나 분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카피디텍터 닷컴' 베타서비스 개시

코인미디어랩(대표 장중혁, www.coinlab.co.kr)은 9월 28일부터, 기업 및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나 분쟁 가능성을 제공하는 카피디텍터닷컴(www.copydetector.com)의 베타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코인미디어랩의 내용기반 복제 탐지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텍스트와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형태의 콘텐츠에 대해 다른 웹사이트와 복제 관계에 있는 콘텐츠를 탐지하여 그 목록을 제공한다. 따라서 웹사이트의 관리자는 카피디텍터닷컴에 자기 사이트의 유일열을 입력하여 자사 웹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또는 분쟁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코인미디어랩의 장중혁 대표는 "여기에 나오는 '저작권 분쟁 가능' 판정의 기준은 '두 개 이상의 웹사이트에서 발견된 복제 콘텐츠'이며, 여기에 나타난 목록이 저작권 침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다만 국내 디지털 콘텐츠의 판매량이 많지 않은 만큼, 상당수가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베타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며, 10월 중에 오디오와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탐지 정보가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회사는 연말까지 조사 대상 웹사이트를 계속 늘려, 국내 모든 웹사이트와 블로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